POLITICS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첫 여성 의장… 민생 중심 '역동적 의정' 돋보여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1년 성과 결산

전국 최초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등 각종 성과 기록
936건 시정·개선 요구 등 집행부 견제 기능에 '충실'
시민 목소리 적극 대변…'공부하는 의회 문화' 정착도

신수정 의장

광주시의회는 제9대 의회 후반기(2024년 7월~2026년 6월)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다방면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실현해 왔다.

무엇보다 입법 활동 성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가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개인 부문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올해에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법령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운영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직접 국회 등에 제안하면서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선도적으로 노력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민생 법령 개선 건의(10건), 지역·국가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32건)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며 의회의 위상도 높였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회 청사 전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4개월 동안 장기 게시하고, 의원 기자회견, 시위 등을 전개하며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내란 극복에도 앞장서 왔다.

또 시의회 사상 최초로 5개 자치구의회와 인사 교류 협약을 체결해 광역·기초의회 간 직접 인사 교류를 실행했고, '의회 사무처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탁상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기존의 고정되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충장로 중심상업지역을 방문해 도시계획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고 광산구, 북구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대표들로부터 골목상권의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광주지역 여행업협회 대표단 간담회,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및 퇴직 소방공무원 모임 간담회, 도시철도 2호선 219정거장 인근 주민 간담회, 광주시 보훈단체 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시민 목소리를 듣고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노력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쳤다.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 수행도 충실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936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했으며, 시정질문(131건), 5분 자유발언(31건)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정책토론회(46회), 의원연구모임(13회), 정책네트워크 운영(19회), 시민여론조사(5회), 정책연구용역(6회) 등 활발한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켰다.

시의회는 '섬세한 소통'을 내·외부적으로 실천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에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사고수습지원단'을 즉시 구성해 사고 현장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방법으로 바꾸었다. 올해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시 의회 사상 최초로 '시민참여형 홍보부스'를 자체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본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신수정 의장은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회가 되고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 제도 개선을 이끄는 책임 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후반기 남은 1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와 함께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역 현안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힘, '보수 불모지' 광주서 시당위원장 선출 경선 예고

'보수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경선을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현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이미 연임 도전을 내부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 당협위원장은 이날 다른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혁신과 환골탈태를 통해 수권정당으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며 "실용과 합리, 지역의 기형적 정치구조 혁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은 "당의 활성화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원의 자긍심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생현장 방문 등 외연 확대 및 인재 영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당협위원회에서는 동남갑 강현구 위원장, 서구갑 하헌식 위원장, 서구을 김윤 위원장, 북구갑 김정명 위원장 등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당 지지세가 약한 호남지역의 특성상 그동안 입지자가 많지 않아 지역위원장을 대부분 단선으로 선출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시당 정기대회는 오는 14일 후보등록 결과, 등록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오는 18일 경선이 진행된다.

경선은 각 지역 당협위원회별 유권자 수와 여성·청년 비율 등을 반영해 구성된 책임당원 대의원이 모바일 투표(Kvote)로 직접 선출한다.

단, 단독 출마일 경우 규정에 따라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연임 도전에 나서고, 지역위원회에서 출마자가 나오면서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뽑게 됐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청년 취업 지원 '면접브랜딩 데이' 운영

광주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 2층과 6층에서 '2025 면접브랜딩 데이'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함으로써 구직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장 2층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기업·공기업 직무 및 인성면접 준비전략 특강'이 열린다.

6층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접 화장법·헤어스타일링·퍼스널 컬러 등 이미지컨설팅, 이력서 프로필 사진 촬영 및 정장 착용 체험, 사기업·공기업 전·현직 면접관과 모의면접 및 컨설팅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jobstation.co.kr) '동명센터 바로가기-직무역량 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10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8·2 전대 당 대표 후보 등록

정청래·박찬대 '당심 확보 경쟁' 치열

정청래 "개혁 대표 돼 정부 성공 첫 단추 채우겠다"
박찬대 "새벽·심야 안 가리고 일하는 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4선)·박찬대 의원(3선)이 10일 8·2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심 공략에 나섰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정청래TV'에서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혁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채우겠다"며 10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3대 개혁 TF 즉시 가동 및 추석 전 마무리 △공천 혁신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등이 담겼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 세력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하나가 구속됐을 뿐,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아직도 단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정치력과 투쟁력이 있는 리더십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도 높은 검찰·언론·사법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지체하면 할수록 반격의 시간을 허용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내 투표에서의 가중치 폐지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민주정부를 창출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룰이 누구는 1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15표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라며 "가중치 투표제는 폐지하고 당 대표, 국회의원,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가 1표인 당원주권시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 20%를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때로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때로는 탄핵소추단장 때처럼 진중하게 일하겠다"며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이 신뢰하고 당원이 사랑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충북도당·대전시당 광역기초의원 및 핵심당원과의 간담회, 한화이글스파크 인사, 충북 청년 간담회를 여는 등 충청 지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대가 하나 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의 필승카드, 정부성공 필승대표 저 박찬대를 당원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 자신 있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왔다. 함께 개혁법안을 성안해 통과시켰고 함께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았으며, 윤석열 탄핵을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이 되게 하는 여당 대표, 유능한 개혁정치를 실현하는 강한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단 한 번의 당·정·대의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완전 종식과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그제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가 여러분 곁에서 지방선거 선봉에 서겠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도 (정 의원을) 맹추격하고 있고 간극 좁아지고 있다.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며 "(내란특별법은)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지만 치열히 논의하면서 크게 기여할 법안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서구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극장판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 시사회에 참석해 김호락 스튜디오버튼 대표,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어린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무등산 배경 애니 '다이노맨' 25일 개봉

광주 콘텐츠기업 스튜디오버튼 제작

광주 콘텐츠 기업이 무등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제작한 만화영화 '다이노맨-공룡산의 비밀'이 25일부터 전국의 메가박스에서 상영된다.

작품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간여행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TV 시리즈 '다이노맨'의 세계관을 확장한 60분 분량의 가족형 콘텐츠다.

무등산에서 태어난 꼬마공룡 히어로 '다이노맨 구조대'가 우주악당에 맞서 멸종위기동물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작품을 제작한 스튜디오버튼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광주지역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으로 '다이노맨', '또봇V' 시리즈 등 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동남아·중국·유럽 등 10개국에 캐릭터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또 '202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공모전'에서 스케일업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사업화 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공모전은 전국 37개 기업이 참가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유치 역량을 겨룬 자리였다.

지난 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광주상무점에서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 VIP 시사회가 열렸다.

시사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및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공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작품을 관람했다. 정식 개봉에 앞서 지역에서 먼저 관객과 만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류기준 의원,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투명·공정한 심의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전남도의회는 10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류기준 의원(화순2·더불어민주당·사진)을 선출했다.

예결위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는 지방의회 핵심 기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이 잘 이뤄지도록 감시와 조정을 한다.

신임 류기준 위원장은 "도민의 땀과 세금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도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4기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제12대 전남도의회 마무리 예결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도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재정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현규 기자